

사
설

절세위인의 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자

영원한 태양복을 누려가는 끝 없는 민족적긍지와 영광을 가슴 뿐만 아니라 절감하게 하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을 맞는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영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일찍부터 민족분렬의 아픔을 두고 잠 못 이루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자신의 최대의 본분으로 삼으시고 그길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자신께서는 어린시절 38° 선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분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하였지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군 하시였다.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언제나 마음씨오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차례나 판문점을 찾으시여 통일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군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혁사의 망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절지하 관찰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자》를 발표하시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족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 전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오래동안 굳게 닫혀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통일에로 가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고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뛰어넘는 수많은 회합이 진행되어 민족의 통일지향을 반영한 좋은 협의들을 많이 이룩하였다.

북과 남사이에 진행된 계종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토론회, 민족통일대축전 등 민족의 대회합잔치들을 통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퍼즐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혁사도 하나인 단일민족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주체96(2007)년 10월 혁사적인 평양상봉이 또다시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채택발표되었다.

지금도 우리 겨레모두는 잊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는 지금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는데 무엇때문에 바라지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민들이 동상을 세울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을.

참으로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우리 겨레는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응호고수하고 빛내

에 대해 결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동족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걸어치워야 한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3월부터 실시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 규모로 치르겠다고 호언하며 정세를 각각 긴장시키고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막아내고 조선민족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을 더욱 드세하게 벌려야 하며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이라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다.

얼마전 해외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서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올해에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한 합의를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끌끌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세는 엄혹하고 시련과 난관이 많지만 통일세력이 분렬세력을 타승하고 자주통일의 새봄이 오는것은 막을 수 없는 혁사의 흐름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진두에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혁사적인 올해 신년사에서 도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에 대한 신심과 략관을 가지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전략무기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우리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가 주제 106(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개발사업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시험발사 날자를 몸소 정해주시였으며 그 준비 사업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위험천만한 탄도탄총조립 전투현장을 찾아오시여 무려 이틀간에 걸쳐 오랜 시간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무되어 배심든든히 조립 전투를 다그쳐나갔으며 시험발사에서 보란듯이 성공하여 한다면 하늘 주체조선의 강의한 기질을 온 세계에 뚝뚝히 보여주고야말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사당일 시험발사에 앞서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만들어낸 리대식 탄도탄 자행발사대차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사대차의 기술적 제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차를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 조직과 지휘, 협동 품보장 사업을 짜고들어 대차생산에 크게 기여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과 군수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협판단위들에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오르

시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북극성-2》형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용한 우리 인민의 자주적 힘, 불굴의 기개를 싣고 수중에서 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멋지게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우리의 강위력한 핵전략무기인 《북극성》탄도탄의 자랑찬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성공의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으며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인들을 열싸안으시고 시험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열렬한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전투명령을 가장 훌륭하고 성

실하게, 가장 진실하고 완벽하게 관철하고 시험에서도 단번에 성공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은 작전리용에 편리하면 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식의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발사대차와 탄도탄의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자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우리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데 대하여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는 나라의 로켓공업 발전에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로켓공업이 액체로켓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로켓발동기에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힘찬 진군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기에 울려 퍼진 장엄한 불교성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탄생 75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가 끝난 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발사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넓은 품에 얼굴을 파묻고 기쁨의 눈물을 두眸을 적시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본사기자



영원한 태양—빛나는 한생

지난해 12월 로씨야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는 로씨야의 각계층 명류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5년 전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결을 떠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는 회고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조국과 인민 앞에 그리고 세계 정치사에 쌓아올리신 아버지 장군님의 거대한 업적들과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이의 고귀한 한생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75돐이 되는 2월 16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릇 한 인간이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한생을 살고 인민의 마음 속에 영원한 추억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그가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김정일장군님!

나는 오늘도 온 겨레와 세계인들이 못잊어 그리는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우러러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소리높이 웨칩니다.

올해는 민족의 위대한 영수들이 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 항일빨찌산 너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사로운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맞으며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미숙하게 나마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이전 쏘련가맹공화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여나 그때 당시의 모든 쏘련사람들과 같은 사상과 리념, 사고방식에 습관된 재로동포 4세대입니다.

그러다나니 당연히 그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불어내는대로 조선에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쏘련에서 태여났으며 쏘련식으로 컷던 것입니다.

2008년 8월 어느날 나는 조국의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나에게 왜 아직까지 평양에 가보지 않았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나는 『조선에 가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다는데 도대체 3~4일동안 가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나는 사람들의 생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일반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한것은 조선에서는 『독재』와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인민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불손하였던 나의 태도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울러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례한 언사를 한테 대하여 전체 조국인민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날 나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국방문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14일 나는 4명으로 구성된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부터 숙소인 평양고려호텔까지 오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평양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하였습 니다. 눈이 많이 내리었지만 모든 거리들과 아스팔트로들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레닌그라드(현재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공부하던 시기 4년 동안 도로청소공으로 일해보아서 도시가 이 정도로 깨끗하려면 얼마만한 품을 들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나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하게 진행되는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 여러 곳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유롭게 걸어서 온 평양시를 일주하면서 많은 공공장소들을 돌아보았고 거리와 상점들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상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조선은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민족의 존엄과 영예, 나라와 인민의 안녕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당당히 솟구쳐오른데 대하여 궁지높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로씨야에서 온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토록 따뜻하고 친절히 대해주면서 나의 모든 질문들에 성의껏 진심으로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에 대한 동정심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려고 웠던 내가 자기의 뿌리인 고국과 떨어져 조국인민들의 혁명과 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은 것으로 하여 오히려 그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주,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에서 온 많은 동포들은 그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인민이 발휘한 강의성과 애국심에 탄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주,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에서 온 많은 동포들은 그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인민이 발휘한 강의성과 애국심에 탄복하였습니다.

이전 쏘련국방상 야조브원수는 자기의 회상록에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나는 그분들을 위인들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장, 위대한 수령들로 높이 존경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조선인민의 애국심을 파쇼도이췰란드와의 전쟁에서 발휘된 쏘련인민들의 애국심과 비교하였습니다.

보건과 교육실태, 과학과 농업, 광업의 발전수준을 보면 그 나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1974년부터 조선에서 세금이 없어진 데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전 쏘련을 포함하여 유럽과 아메리카주의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감히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조국에서는 홀륭한 무상치료제도 하에서 누구나 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진 마을이라도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일떠서 아이들은 부모들과 떨어져 기숙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국에서는 버림받은 늙은이나 거지, 마약중독자나 매춘부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제와 과학분야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과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하였습 니다. 눈이 많이 내리었지만 모든 거리들과 아스팔트로들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는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창창하다, 인민우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의 수령님들이 시야말로 모두가 절대적으로 흡모하고 백방으로 본받아야 할 분들이 시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와 우주정복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자기 나라가 강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이 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심과 신뢰심,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더더욱 커만가는 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이 약하여 침략자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 약소국의 설음에 피눈물을 쏟던 우리 민족이였고 혈강들의 희생물로 비참하게 뜯기우는 조국을 불안고 왜 남파 같이 크지 못했느냐 원망속에 가슴치며 산설고 물설은 이역의 하늘 아래 모래처럼 흘러졌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철성 판에 올랐던 그때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광아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시여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불세 출의 선 군태양이 신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반미대결전에서 련속 승리를 이루하시고 핵보유의 민족사적 대업을 이루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조국방문의 날이 훌려갈수록 나는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불어대는 그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이였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에는 수령들에 대한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없습니다.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들이 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흡모와 경모심, 그분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여보시고 따르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령, 당, 인민의 혼연일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쏘련사람들이 자기 군대와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전 쏘련시기에 『인민과 군대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생활에 구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쏘련이 붕괴될 때 군대의 위상이 존경받을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상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군대가 자기 인민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관계를 맺고 있음을 뿐 아니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하는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채택되었지만 그이께서 거듭 만류하시여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공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국의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의 탄생일을 그처럼 성대히 경축한 8일간의 체류기간 나는 텔레비죤을 통해서도 그리고 경축행사장에서 그이를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나는 저도 모르게 한 일군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지금 장군님께서는 공장과 농촌,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인민들은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며 휴식을 하고 그이께서는 그 인민을 위해 일을 하고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위력한 핵폭탄으로도 끼울수 없는 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근본핵이였습니다.

조국을 떠나기 3일전 우리는 다른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는 기회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와 관련한 기록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생전에 늘 사나이는 남한에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으며 나는 일생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때조차 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온 겨례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는 화면들을 보면서 나는 자신을 걸잡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였으나 문득 나 혼자만 울고있는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터뜨리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항일의 영웅들이 안치되어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았습니다.

항일전의 날짜 빨찌산 너장군으로 명성을 떨친 김정숙어머님의 통상 앞에 정중히 꽂다발을 드리면서 나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나의 어머니와 친지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위대한 어머님의 모습으로 나의 앞에 계시였습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또 울었습니다.

내 심증을 이해한듯 우리와 동행하는 한 잡지사 주필이 나를 부축하며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의 첫 조국방문나날들을 생각할 때면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조선속담과 『코를 맞대고는 얼굴을 볼 수 없다. 멀리 설수록 큰것이 보인다.』고 한 로씨야의 저명한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로씨야에서 조국에 나처럼 오랜 기간 체류한 동포는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조국방문은 나의 눈을 티워주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흡모심과 조국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안겨준 나날이었습니다.

다시말하여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술한 현대적군사장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나라와 민족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출한 수령을 모실 때라야 비로소 그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 만방에 떨쳐질 수 있다는것을 나의 이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장으로서의 천재적재능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의 칭호를 수여받으시였습니다.

장군의 위대성과 자질은 그가 이룩한 승리적업적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들합니다.

특히 종포성없는 전쟁, 인적손실이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세계인민들은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칠성**

주제 106(2017)년 2월 4일

서리꽃 편 2월의 하늘가에
인민의 마음을 담고 울리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네 품에선 아이들도 왕으로
자라고
바라던 모든 꿈이 꽂되어나네
장군님 지켜주는 행복님친 집
...

누리는 행복이 클수록 그 행
복을 지켜준 품이 그리워 누구
나 사무치게 부르는 노래 『사
회주의 너를 사랑해』이다.

어느 한 작가는 『시인은 종
이우에 펜으로 자기의 시를 남
기지만 위인은 자신의 발자취
로 이 땅우에 무수한 시를 남
긴다.』고 말한적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
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
이라는 불멸의 유산을 남기시
였다.

지금 지구상의 현실은 참으
로 다사다난하다. 빈곤과 생활
난에 모대기는 인민들의 삶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련일 각곳
에서 그칠새없고 도처에서 터
지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사
람들은 살곳을 찾아 피난민이
되어 방황하고있다.

남조선만 놓고보아도 실업자
가 되여 앞날에 대한 꿈을 잃은
『삶포세대』로 전락하여
타락과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
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
이 화목한 한가정이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미래를 향해 힘
차게 나아가고있다. 인민이 주
인이 되고 『세상에 부럽없어
라』의 노래가 인민이 부르는
시대의 노래로 울리는 이 땅,
인민이 안겨사는 이 행복의 집
은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것인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
떠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사
회주의 큰 집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신분은 바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이시다.

백두의 전장에서 항일의 총
포성을 자장가처럼 들으시며
령장의 슬기와 담력, 배짱을

장군님 지켜주신 인민의 집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돌이켜보면 20세기의 마지막
년대인 지난 1990년대는 지구
상 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의 총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재앙의 화
염이 하늘가를 뒤덮었던 시기
였다.

80여개 나라에서 120건의 무
장분쟁과 전란이 일어나 600여
만명이 목숨을 잃고 약 3억
명의 평화적주민들이 피난민
의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
였다.

조선반도에도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며 침략전쟁의 겹은 구름
이 몰려오고있었다.

1993년 2월 미국은 국제원
자력기구를 사축하여 이른바
『핵의혹』을 운운하며 공화국
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
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라
는것을 채택케 했으며 일시 중
단했던 침략적인 『팀 스퍼리
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
포하고 20여만의 무력과 전략
폭격기, 핵항공포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정
세를 각일각 전쟁접경에로 끌
어갔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때 천하를 진감하
는 폭탄선언이 터져나왔다. 전
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상태
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령이 하달되고 공
화국의 자위적조치로서 『핵무
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울려
퍼지였다.

세계의 여론은 지구상의 모
든 핵폭탄을 다 터쳐도 조선
의 이번 성명보다 위력하지 못
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
으며 혼비백산한 미국은 끝내
조미협상에 끌려나오지 않으
면 안되게 되였으며 항복서와
도 같은 대통령의 담보서한까
지 보내왔다.

오스트랄리아의 한 방송이
이러한 현실을 두고 『지구가
깨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지
적한것이 우연하지 않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불폐의 무장력인 백두산장군
이 있고 한생을 바쳐 키워주
신 자주적인민이 있는 한 두려
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
고 하시며 고난과 역경을 맞받

아 해쳐가신 장군님의 선군장
정의 길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
명은 수호되고 국력은 최대로
강해졌다.

언제인가 눈보라치는 백두
산에 갔다왔더니 힘이 나고 기
분이 상쾌하다고 하시며 열정
에 넘쳐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
가시고 또 언제인가는 백두산
기술에서 장편서사시 『백두
산』의 구절구절을 감회깊이
더듬으시며 오늘은 우리가 빨
찌산을 하고 있다고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91(2002)년 2월 백두의
봄빛을 안으시고 눈보라강행군
길을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온 세상에 통장
훈을 부를 날이 반드시 올것이
라고 확인하시였다.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으로
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아이
들이 왕으로 자라고 바라는 꿈
이 현실로 꽂되는 사회주의화
원속에서 2월을 환희와 기쁨속
에 맞이하고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여도 막
강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한다고, 선군을 떠나서는 결
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 대
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며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
으켜 사회주의강국의 새 시대
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이시였다.

령하 30°C를 기록하는 북방
의 맵짠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희천발전소건설장과
대고조의 생산현장들을 찾으
시고 한여름의 폭양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의 여
러 부문에 대한 삼복철강행군
을 이어가신 그이의 로고속에
조선의 위성이 우주를 날고 주
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
어났으며 나라의 토지가 사회
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이 펼쳐졌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
의 시기에 부강할 조국의 래
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
을 아낌없이 우리식의 통합생
산체계에 돌리신 장군님의 선
견지명과 용단에 의해 나라의
과학기술은 최첨단을 돌파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인
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
생과 만난시련을 인민의 복락
과 맞바꾸시고 바로 그것을
자신의 더없는 락으로 간주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한결
같이 김정일령도자는 오로
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전략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
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
라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이라
는 대지우에 뿌려놓으신 행복
의 씨앗들을 알찬 열매로 가
꾸어가고 계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
의 유훈들을 심장에 하나하나
쪼아박으시고 인민사랑의 새로
운 서사시를 써나가신다.

언제나 인민위한 로고의 길
에 계시면서도 인민들에게 무
슨 기쁨을 더 줄수 있을가 하
는 자책과 마음속무게를 안고
사시는분.

그이의 그 사랑속에 인민들
은 밤이면 행복의 단잠에 들고
새날을 맞으면 지난밤의 꿈을
현실로 누리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부르는것이다.

네 품에선 폭풍쳐도 두려움
모르고

인민이 주인된 력사흐르네
선군의붉은기가 휘날리는집
사회주의 사회주의 우린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
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욱 풍성하게 가꾸어가시는 사
회주의요람, 행복의 집에서 인
민들은 하나의 대가정되어 더
큰 번영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
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씨앗을 떠나서는 무성
한 아지와 잎새를 생각할
수 없고 실한 열매가 주렁
지는 풍요한 가을 또한 그
려볼수 없다.

오늘 공화국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번영의 씨앗
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손길 아래

하나, 둘 짹드고 자라나
열매맺은것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땅 방방
곡곡에 뿌려놓으신 씨앗
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

다. 조국방선을 지켜선 수
많은 인민군부대들과 강제
와 성강, 락원과 라남, 구
성과 대홍단, 한드레벌 그
어디에나 그이의 발자취
와 뜨거운 숨결이 짓들어
있다. 남들같으면 열번번
도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
련의 고비를 불타는 애국
현신으로 헤치시며 조국
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을 수호하고 인민의 리상
이 실현되는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장군님
이시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
강행군, 심야강행군, 초강
도강행군이라는 말을 외울
때면 사람들은 이제는 집
에 오면 려판에 온것 같고
렬차에 올리야 집처럼 마
음이 편해진다고 하신
그이의 현지지도의 나날들
을 뜨겁게 새겨보군 한다.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파 비날론첨유생산, 기계
공업의 최첨단돌파, 온 나
라에 뻗어간 자연흐름식물
길, 축산기지, 양어기지건
설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을 위한 토대가 훌
륭히 마련된것은 장군님의
애민현신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였다.

나는 선군길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기어이 가자
는거다, 인민들은 반드시

이것을 다 이해하게 될것
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조국과 후손만대를 위해
무엇을 해놓았는가에 대해
여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이제 보라, 통장훈을 부를
날이 꼭 온다, 동무들 믿
으라! 승리를 믿으라! 미
래를 믿으라!...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
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
로 부르고부르시며 장군님
해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에
서 공화국은 자위의 핵뢰
성을 올리고 인공지구위성
을 련속 우주에 쏴올리며
강국건설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가게 되였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
이시며 줄기찬 열차강행
군을 하신 그이, 인민을
위해 하신 천만가지 약속

온다 지키시면서도 자신의
휴식약속은 언제 한번
실천하지 못하신 장군님이
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
난의 길을 헤치시면서 조
국땅우에 묻으신 행복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경
이적인 사변.

보는것들마다 자기의 지
혜와 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만든 우리의것이
다. 그래서 더욱 애착이
가고 소중한것이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렇듯 크나큰 업적을
이루하시고도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
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
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
를 보냈다시며 인민의 참
된 충복, 충실했던 심부름
군이 될것을 맹약하시는
령도자의 모습에서 인민
은 누구나 한없이 자애로
운 품속에 안겨사는 행복
과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
시였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강번영의
래일을 하루빨리 안아오시
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
에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여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속의 순
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신
분투하고계신다.

본사기자 김철진

열매

고 조국수호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가슴드
겁게 절감하고있다.

전국 도처에 일떠선 육
아원과 애육원들, 마식령
스키장과 과학기술전당,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
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
자거리, 송도원 국제소년
단야영소와 만경대 학생소
년궁전, 지하평양을 질주
하는 지하전동차, 저 하
늘을 날아에는 우리 비행
기, 물고기폭포가 쏟아지
는 황금해의 력사와 철령
아래 사파바다, 백두산기
슭에 일떠선 대규모발전
소, 실로 세계를 놀래우
는 그 모든 창조와 기적
들마다에 위대한 수령님
들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
로 꽂피워가시는 경애하는

한
평
생
인
민
들
속
에
계
시
며

늘어난 방울소리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이
른새벽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종성동부근에 이르시
었을 때 어디선가 이른새벽의 정
적을 깨뜨리며 딸랑딸랑 하는 방
울소리가 울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리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
다. 거기에서는 한 너인이 손수레
를 옆에 세워놓고 방울을 울리고
있었다.

그에게로 다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파는가고 다
정히 물으시였다.

자기 앞에 서계시는분이 누구신
지 미처 알아뵙지 못한 너인은 국
을 판다고 혼연히 대답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에게 국값은 얼마이고 원재료는
어떻게 보장받으며 인민들의 반영
은 어떤가, 언제부터 이렇게 봉사

울겨진 작업장

주체87(1998)년 12월, 한겨울
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
시고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
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그러시다가
한 기대공에게 다가가시여 그의
웃음을 손수 만져보시며 춥지 않
은가고 물으시였다.

괜찮다고 대답올리는 그 기
대공의 손을 자신의 체온으로
덥혀주듯이 감싸쥐시고 작업
장의 온도를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공장을 하
나 건설해도 거기에서 일할 로동
자들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며 작

본사기자

장
시

통일태양의 역사는 길이 빛나리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김 윤 식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더해만지는
불타는 그리움이 하늘에 닿았는가
이 아침 더더욱 밝게 타는 노을속에
또다시 밝아왔구나
뜻깊은 광명성절이

해빛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저 백두산마루에서 남해끌까지
사랑하는 조국땅을 굽어보시는가

장군님 그 영상 우러러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심장으로 터치는 목소리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통일의 태양되시여 삼천리를 비쳐주십니다!

우리 정녕 그이를
달리아 부를수 있으랴
민족이 나아갈 길 환히 밝혀주신
비범하신 그 예지
태양의 찬란한 빛발에만 비길수 있고

따사로운 품에 안아
겨레를 보살피신 그 사랑
태양의 열화에만 비길수 있어
오직 태양, 태양이시라고밖에는!

이 시각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한생이 시작된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우리의 마음은 달려가노라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자그마한 방엔 소박한 나무책상
오늘도 그우엔 숭엄히 놓여있어라
사연깊은 쪽무이조선지도가

그이께선 여기 백두성산에서
가장 뜨거운 조국애의 냄을 간직하신분
그때 벌써 그이께서는
태양의 따사롭고 넓은 품속에
삼천리를 안으셨구나

애국애족의 불타는 냄 남다르게 간직하신
우리 장군님이셨기에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분계선없는 하나의 조국을 위해
심혈과 로고 다 바치신것 아니던가

그이 늘 하시던 뜨거운 말씀
오늘도 가슴을 팽팽 울려주거니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자신께서는 언제 한번도 갈라진 조국을
생각해본적 없다고

못별 반짝이는 깊은 한밤에도
흰안개 피여나는 이른새벽에도
통일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
한자두자 불멸의 통일대강 써나가셨고

현지지도의 길에 찾으셨던 분계연선의
깊은 밤
어디선가 울려오는 소쩍새소리
민족분열의 설음을 안고
겨레가 터치는 피눈물의 호痛같아
아프신 마음으로 꼬박 지새우신 장군님

말해다오, 세월이여
축하를 받으셔야 할 2월의 탄생일에도
통일을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
새날이 밝아오도록
통일의 방략 밝혀주시던 그 영상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라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통일을 두고

십려하셨으니

아, 사무친 정도 세월이 흐르면
씻겨진다 했더라
그리움도 흐르는 세월따라 간다 했더라
허나 장군님 겨레를 위하시는 사랑과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태양의 열파 정이였어라

억만장설도 일시에 녹일
그 열파 정 다 바치시며
한치한치 열어가신 통일의 길
그 길에서 맞으신 아침은 얼마였고
지새우신 밤은 세여보아 또 얼마이라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진정 어이 모르시련만
이 길이 조국통일과 잇닿아있다면
백리라도 천리라도 가고 가겠다 하시던
장군님의 절절하신 그 심정

그 백리길, 천리길이 백두에 닿았는가
선군총대로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신 장군님

분렬을 기어이 끌장낼 대용단 안으시고
백두성산에 오르시였거니
산아, 백두산아
그날의 흔눈 추억깊이 내려다오

내리는 눈도 그이의 사색을 싣고
조용히 내리고 내렸어야
온가루 날리는 령봉의 마루에서
장군님 거연히 굽어보신 삼천리강토
그이 안팡이 가닿은 곳은 저 멀리 남녘의
한끌

—겨레여, 사랑하는 겨레여
그대들에게 자주통일의 새 시대 펼쳐주
리라

삼천리 조국강토여
분렬의 동토대를 밀어내고
통일의 새 봄을 꽂펴우리라

쪽무이조선지도를 사랑으로 품으셨던
조종의 산악 백두령봉에서
통일의 구상을 무르익히신 장군님
그 철석의 의지에 떠받들려
이 땅우엔 펼쳐졌어야
통일의 봄 6.15시대가!

온 삼천리강토가
일시에 격동의 눈물에 끓게 한
민족사적사변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우리 장군님

반세기나마 꽁꽁 얼어붙었던
분렬의 차디찬 장벽을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여버리며
평양으로, 백두산, 금강산으로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꿈같이 열려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던 그 나날

추석을 맞는
남녘의 각계 인사들에게
향기로운 칠보산송이버섯도
보내주신 장군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려
평양에 왔던 남녘의 한녀인
뜻밖에 평양산원에서 옥동녀를 낳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

딸자식을 생각하는
친정아버지십정으로
뜨겁게 말씀하시였어라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게 되면
갓난아기가 소음에 놀랄수 있고
산모에게도 지장이 있을수 있으니

관문점을 통해 륙로로 보내주자고

아, 통일동이가 태여났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산꿀이며 보약도 보내주신 장군님
돌아갈 때도 이렇듯 크나큰 사랑 배포시였거니

그이 넓고 따뜻한 품에서
꼭절많은 인생과 결별하고
참다운 애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 열마이며

그 길에서 영생을 찾은
사람들은 또 그 열마라

사상과 정견,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파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이 너그러운 인품과 덕망에 끌려

외세가 쥐여준 총부리를 들고
민족을 반역했던 사람도
『하느님』께 운명을 의탁한 종교인도
그 품에 안기였으니

잊지 못해라
늦게나마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선
남녘의 한 기업가의 소행
그리도 귀중히 여겨주시며

수백리 밤길을 달려오시여

따뜻이 손잡아주시고

남녘겨레들도
민족의 명산 마음껏 구경하도록
금강산관광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애국적인 기업가로 내세워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어버이 장군님

그이 품은 진정
불신과 반목으로 얼어붙은 가슴에
화해와 단합의 불덩어리를 안겨주고
통일성업에로 힘있게 떠밀어준

운명의 손길, 태양의 품

온 남녘땅을 위인숭배의 열기로
뜨겁게 달군 『김정일열풍』!

그이의 환하신 모습에서 겨레는
통일된 하나의 조국을 보았어야

무슨 말로 노래불러 감사드리라
이 조선 삼천리에

자주통일의 새시대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그 업적

위대한 통일태양의 력사로 길이 빛나리니

하기에 겨레는 이 아침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안으
시고

경애하는 원수님 하시던 말씀

뜨겁게 되새기거니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신날에도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우리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강국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여

장군님의 필생의념원을 꽂펴우는것으로

그이의 영생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겨레여, 우리 다 함께 보고

다같이 심장으로 절감하지 않았던가

장군님의 통일의지 뜨겁게 어려있는

관문점을 찾으시여

조국통일의 신념 굳게 다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시여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
오늘도 장군님의 력사는
이 땅우에 장엄히 흐르고있음을
아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이를수 있음을

당제7차대회가 열린다는 격동의 소식에
온 행성의 이목이 평양으로 향해졌어라
—조선은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어떤 통일로선을 내놓을것인가
제 나름의 억측과 전망들도 하였어라

허나 우리 원수님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엄숙히 천명하시였어라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로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고
민족의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이 삼가 올린
축하문화 축기들도 받아주시고
뜨겁게 고무격려도 하여주시던
원수님 그 영상에서
겨레는 다시금 뵈웠어라

력사적인 6.15시대를 안아오시여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온 민족을 따뜻이 품어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의 그 모습을

똑똑히 새겨안았더라
천갈래 만갈래 길은 많아도
우리가 갈길은
위대한 수령님들 가리키신 오직 한길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그 길로만 나갈 때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것을

세계가 머리숙였나니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의 길 변함없이 이으시며
병진의 포성 높이 울려주신
그이 불같은 충정의 열도
그이 고결한 모습앞에서

백두산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눌러버리시며
동방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오리라

뜻깊은 올해의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 열어나가자고
북파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밝은 미래 함께 열어나가자고
경애하는 원수님 열렬히 호소하셨거니

가자, 겨레여
원수님 밝혀주신 통일의 길을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
힘차게 다그쳐나갈 때
제2의 6.15시대는 반드시 펼쳐지리라

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통일강국의 새봄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시여

장군님은 오늘도
통일태양의 찬연한 빛과 열
삼천리에 뿌려주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진득에 서계신다
김정은통일시대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신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 밀영 결의 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백두산 밀영 결의 대회가 13일에 진행되었다.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

해 헌신하시며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백두산 밀영에 차넘치고 있었다.

밀영상공에는 《광명성절경축》, 《수령복, 장군복》,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

이 메아리친 환호성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꽂피우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의 웨침이였다.

본사기자

운 대형 기구들이 펴 있었다.

대회에서는 결의연설들이 있었다.

백두의 대업을 끊어나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끊게 하는 연설들은 전체 참가자들에게 백두에서 개척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이어 백두광명성을 받들어 올린 백두산 밀영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기약해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세세년년 빛내여가는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의 분출인듯 하늘땅을 진감하며 터져오른 환희의 불보라는 천하제일 정일봉을 천색만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이며 신비의 일만경을 펼쳐놓았다.

존엄높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축복하며 장쾌하게 터져오르는 축포성과 함께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백두밀림의 산발들을 쟁쟁 울리였다.

백두산 밀영에 펼쳐놓았던



제21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75돐 경축 제21차 김정일화 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으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부강번영을 위한 억년기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세계가 축전장에 펼쳐졌다.

축전이 진행될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는 《제21차 김정일화 축전》, 《경축》, 《75돐》이라는 글발이 나붙어 있었다.

또한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새워져 있었으며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 있다.

태양청송의 꽃바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

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었다.

개막사를 김창도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 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꽂피우기 위한 총공격전에 멀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 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가 주악되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아름답게 꾸여난 김정일화들과 진귀한 화초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본사기자



만인총애의 꽃 김정일화

세상에는 꽃의 종류가 해야릴수 없이 많고 꽃들마다 상징이 있다지만 김정일화처럼 그렇듯 위인청송의 심원한 뜻을 담고 있는 꽃은 없다고 본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과 마음에 떠받들려 활짝 편 태양의 꽃 김정일화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

재중동포 전생금



↑ 광명성절 경축 조선우표 집중전시

← 광명성절 경축 일음조각축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2월의 봄》 음악회 미국 뉴욕에서 진행

4일 미국 뉴욕에서 우륵교향악단 단장인 재미동포 리준무가 지휘하는 《2월의 봄》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일군들과 가족들, 재미동포들과 미국인들로 초만원을 이룬 비킨콘서트홀극장에

서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관현악 《장군님께 영광을》, 《백두의 말발굽소리》, 《나는 알았네》, 《말해주리 병사의 사

랑을》,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음악들 그리고 외국명곡

들이 연주되었다.

다.》, 《매우 인상적인 음악회

였다.》고 경탄을 표시하면서

미국인들은 《조선의 음악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

다.》, 《매우 인상적인 음악회였다.》고 경탄을 표시하면서

미국인들은 《조선의 음악이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본사기자



뜻깊은 김정일화 축전장을 돌아보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초불처럼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굽이 젖어든다.

열정의 생기를 뿜는 붉은 꽃잎, 청신하고 억센 느낌을 주는 푸른 잎사귀, 참으로 불멸의 꽃 김정일화 야말로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세계의 진보적인류와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흡모와 절절한 그리움의 정화라

고 생각한다. 나라와 민족앞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김정일화와 더불어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꿈이 실현된 사회주의 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 것이다.

평양시 락랑구역 동산동 김연화

흔히 사람들은 6.15시대를 우리 민족끼리시대라고 부른다. 바로 이 시대에 북과 남의 운거에는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북남사이에 21차의 상급회담과 13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 차의 회담과 접촉 진행,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의 래왕과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실히 진행, 경제와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사업 적극 추진…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긴 역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와 사변들을 안아온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 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현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이미 오래전에 북남최고위원회장을 몸소 맡기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실현을 위하여 심혈과 뜻을 다 바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기어이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실 의지를 굳히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돌이켜보면 갑격도 새로운 주체89(2000)년 6월의 혁사적인 평양상봉,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 지와 불면불휴의 로고, 애국애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여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뜻대로 분별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빙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절하게 울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판철하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타월한 사상과 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의 혁사적인 평양상봉,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통일의 지와 불면불휴의 로고, 애국애

족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측 대통령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들이 체류하는 전 기간 친리혜안의 예지와 넓은 포옹력, 숭고한 도덕과 해박한식견으로 그들과 여러 차례 격식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 성원들과 진행하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침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였다.

혁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체택을 계기로 《김정일총격》, 《김정일열풍》이 온 강도에 굽이쳤다. 평양에 왔던 남측 성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을 《호방하고 자신심이 넘치시는분》, 《너그리우면서도 꽤 활하신분》, 《통이크고 호탕하며 모든것에 환하시고 정치적지도력이 뛰어나신분》,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시는 초능력을 소유하신분》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겨레가 6.15의 가치, 우리 민족

끼리의 기치높이 거족적통일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협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6.15공동선언리행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해주시고 공동선언리행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리시였다.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로 공화국의 대규모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시여 온 남녘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해주신분도 장군님이시고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도 친히 만나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분도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애국애족의 조치에 의해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과 남사이에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민족의 대회합찬치들이 성대히 치르어져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남사이에는 분렬의 장

벽을 뚫고 삼천리강토를 하나로 잇는 통일대통로가 뻗어나가고 북과 남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 각계층 민간단체들사이의 다방면적인 래왕과 접촉, 교류를 통하여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고 전진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96(2007)년 10월 또다시 혁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시였다.

진정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위엄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해나가시는 백두의 천 출위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내외분렬주의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도

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혁명하게 평도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혁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놓는 의의깊은 해로 되게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통일애국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평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반드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거족적인 통일대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혁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고영식

확고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절대 불변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갖고 있는 그들을 기리며

그들을

무릇 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온다고 했다. 따스한 빛을 바라는 마음, 부푸는 희망, 생의 힘력과 아름다운 레일에 대한 갈망.

겨우내 불어치던 칼바람도 어느 기가 꺾이고 눈속에서 멀던 산천초목도 부푸는 대지와 함께 소생의 기쁨으로 설레

봄을 그리는 마음들

얼마 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는 수십만 군중이 추켜든 초불이 어두운 밤의 거리를 대낮처럼 밝힌 가운데 『봄을 기다리는 꽃』이란 글자가 세워져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지난 1월 『봄으로 가는 초불』이란 글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봄을 애태게 그리고 있다.

눈바람, 찬서리에 묻힌 씨앗처럼 움트고 꽂힐 땅이 없고 빛이 없어 꿈과 희망, 삶마저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소생의 봄이다.

초불의 거리들에 서보면 그 강렬한 지향과 열망을 알수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15차 초불투쟁이 벌어졌다. 정월대

민중의 갈망, 『박근혜 없는 봄』

일 이 계절, 2월의 남조선에도 봄이 태동하고 있다. 단순한 자연의 봄이 아니다. 사람들의 한결 같은 열망과 지향, 의지가 불러오는 사회의 봄이다.

주주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장에서 같이 봄을 맞이하자, 2월 총집중으로 광장에 모여달라』는 열렬한 호소들이 울려나왔다.

무려 15차, 벌써 몇 달째 끊길 줄 모르고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을 두고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거리의 사람들은 새 시대를 의미하는 『서울의 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평한 적 있다.

그렇다.

박근혜에 의해 인간생지옥, 인권불모지, 민주의 동토대로 화한 남조선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새 정치, 새 생활의 봄이다.

봄을 위한 줄기찬 투쟁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남조선에서 봄계절은 투쟁의 계절이라고 불러왔다.

흘러온 혁사를 인식한 말일 것이다.

혁사를 거슬러 가보면 남조선에서 봄계절은 자주와 민주,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짙드고 꽂펴난 투쟁의

계절이였다.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전인민적인 반미구국투쟁이 벌어졌던 2.7구국투쟁과 미국적인 『단선단정』을 반대한 제주도 4.3인민봉기, 리승만과 쇼독재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폭발로 일어난 1960년 4.19인민봉기, 1980년 광주인

도 더 탄핵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남녀인민들은 너도나도 말하고 있다.

이런 혁사의 죄인, 특등범죄자가 탄핵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남조선 사회와 인민들을 위해 천만번 옳은 일인 것이다.

하기에 『헌법재판소』가 옳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도 빨리 하라는 것이 초불민심의 드센 요구이고 박근혜에 대한 징벌을 하루라도 앞당겨 어둠을 물

지금 남조선에서는 살인적인 그 채변이 다시 울려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모두가 받아들여 박근혜가 『국정』 통단을 계속하게 하고 모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살아서 『블랙리스트』도 다시 만들게 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나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로동자들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계속 폐를 빨리워도,

청년들이 실업자로, 『N포세대』가 되어 계속 죽어 가도 박근혜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다 참고 견디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박근혜 악녀는 제가 『대통령』 권력을 회복하면 자기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언론들, 검찰, 초불민중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섬찟한 폭언까지 꺼리낌 없이 들어놓은 상태이다.

이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하는 것인가고 남녀의 초불민심은 분노하여 묻고 있다. 그리고 그 채변을 단호하게 박차며 초불을 더 높이 들고 『박근혜 없는 봄』을 기어이 자기들의 손으로 안아오겠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혁사의 주체인 민중이다. 민심은 이미 박근혜를 버렸고 박근혜 없는 래일에 가 있다. 남녀의 수백 수천만 민중이 추켜울린 그 노도와 같은 초불의 물결은 천하악녀를 끌끌내 삼켜버리고 정의와 민주의 새세상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말기고 결

과에 승복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내지르는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나 같다.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수년 전 『세월』호에 탔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바다 속에 그대로 수장되어 꽂망울 도 피여보지 못하고 애절하게 목숨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악귀같은 『정권』에 의해 이리 찢기 우고 저리 억압당하며 죽음을 강요당해왔다.

『가만히 있으라』는 사실상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소리였다.

본사기자 김영진

민봉기...

민주의 새봄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은 봄과 더불어 더욱 커만 갔다. 그러나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이 전만 남조선에서 분출된 인민들의 봄의 열망, 봄의 투쟁은 응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 소중한 그 지향이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늘 남조선의 언론들도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1960년 4월 리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낸 4.19인민봉기의 민주화의 지가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

타로 1년 만에 좌절되고 1979년 10월 박정희의 죽음으로 기대하였던 『민주화의 봄』이 1980년 5월 전두환역도의 광주인민봉기 탄압으로 짓밟힌 것과 같은 『빼앗긴 민주화의 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민들의 소중한 꿈이 찢기고 봄의 환원 속에 살려는 인민들의 열망이 짓밟힌 그런 혁사는 반복되여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 열풍과 함께 찾아온 이 봄에 남조선인민들이 다시금 가다듬는 느낌이고 의지 일 것이다.

봄은 반드시 온다

누비고 있는 것도 그때 문일 것이다.

겨울을 이기는 봄의 『힘』이 간단치 않은 것처럼 봄을 막아보려는 사나운 겨울의 『기승』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일 박근혜 탄핵을 위한 14차 초불투쟁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박사모』, 『한국자유총련맹』

등 국우보수단체들이 서울의 덕수궁 대한문 앞과 청계광장에 기여나와 『계엄령을 선포하라』, 『특검은 뱉쟁이다』, 『박근혜를 구원하라』는 소리를 질러대며 소란을 피웠다. 이런 『맞불집회』 참가자들을 박근혜 패당은 돈까지 쥐여주며 끌어들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추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대통령』 탄핵요구가 전사회적으로 드세지는데 기겁하여 우습지에 기여들어 가 목 한번 내밀지 못하고 있던 친박계 인물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고 한다. 끈떨어진 뒤옹박신세에 마지막을 물어쉬고 있는 박근혜도 최순실 사태를 전면부정하며 최후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법칙이다.

『박근혜 없는 봄을 만드자』, 남조선의 거리들에서 더욱 힘차게 울려나오는 웨침.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으로 독재권력을 파멸시키고 그 무덤 위에 자유와 민주의 새 봄, 새 정치를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그 속에서 2017년 이 봄에 남조선에서는 민주의 봄이 태동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파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특대형 추문 사건으로 최악의 통치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 보수 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불과하다.

『년례적』이니, 『방어용』이니 하는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떠들며 감행되고 있는 내외호전 세력들의 군사적 망동은 조선반도에서 누가 전쟁 세력이고 침략 세력인가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어리석은 『흡수통일』 야망에 사로잡혀 공화국을 어찌보겠다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광기 어린 북침 전쟁 소동과 이를 적극 부추기고 있는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소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처해있다.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사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번져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이다.

먹이감을 본 이리마냥 무리로 던벼드는 미국의 핵전쟁 수단들에 돌랄 공화국이 아니다. 선제타격은 그 누구의 전용품이 아니다.

침략 세력들이 신성한 조국의 한치의 땅, 1mm의 영해라도 침범한다면 항복서에 수표할 놈도 없게 불마당질 하겠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의지와 자세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저들의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소동이 후회 할 수도 없는 쓰디쓴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들이 그 출로를 동족 대결에서 찾고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은 미국과 핵전략자산의 전개 규모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느니, 『훈련 후반부 대규모 통합 학력 격멸 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3월로 예정된 미국과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혁대 최고 수준에서 강행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은 올해 합동 군사 연습에 대대급이 상륙해 공군부대, 구분대들을 대거 참가시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북침 전쟁 훈련에 팜도와 미국 본토로 부터 특별히 편성된 핵전략 폭격기 『B-52』, 『B-1B』, 『B-2』 편대들을 투입하며 일본 본토와 오끼나와에 미리 전개하여 놓은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까지 무리로 출격시킨다고 하고 있다. 한편 해상으로는 『칼빈손』 호 핵항공모함 전단도 동원된다고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군사적 망동을 끼우며 반대하며 『안보불안』

이 아닐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공화국은 여러 계기들에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바라는 애국애족적이며 진정 어린 제의라는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호전 세력들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요구에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대규모적인 북침 전쟁 연습 소동을 벌리는 것으로 정면도전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많은 핵 타격 수단들을 포함한 방대한 침략 무력이 동원되는 올해 합동 군사 연습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 및 미싸일 기지를 『탐지』, 『방어』, 『교란』, 『파괴』 한다는 『4D 작전계획』과 미국이 떠드는 『참수작전』을 포함한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 계획에 따라 강행되는 것이다.

내외호전 세력들은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3월에 진행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벌써 훈련은 시작되고 있다. 선제 타격 이후 『북 안정화』 작전에 투입된다는 급조 폭발물 (IED) 제거 부대가 남조선에 투입되는 속에 남조선 민족 수부대가 2월 초 수직 리착륙 항공기 『오스프리』와 특수 전용 수송기 『MC-130』을 리용해 공화국의 내부에 침투해 지휘부를 공격하고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연합 훈련을 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단적 실례이다.

이러한 광기어린 북침 핵 전쟁 소동은 미국의 힘을 빌어 동족을 끼우며 반대하며 『안보불안』

세상을 밝혀주는 의로운 집단이 아니라 사회에 절은 어둠만을 물어오는 썩은 집합체이다. 꼭두각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수년

빛을 두려워하고 캄캄한 밤만 추구하는 이런 당에 파연 해불이라는 상징 마크가 어울리는가. 민심을 또 한번 기만 우롱하려는 역겨운 짓

리려고 발악하는 것도 그들이 어둠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해불과 어울릴 수 없다.

초불, 해불로 태워 없애려야 할 악의 세력일 뿐이다.

류현철

단평

검은 몸통에 『해불』 모자쓰기

간 『국정』을 함께 통락한 밤의 세력이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가 민심의 탄핵 심판을 당한 지금 이 시각에 조차 『탄핵기각』, 『초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며 온 남녘에 태자는 분노의 초불을 꺼버

